

# 現代 中國人 精神史의 한 側面\*

- 《사람아 아 사람아》로부터 《廢都》까지 -

錢 理 群\*\*

## 1. “小說에서 中國의 國民性을 본다.” (魯迅)

《사람아 아 사람아》(1980년 5월-8월에 지어짐)와 《廢都》(1992년 10월-1993년 2월에 지어짐)로부터 7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사상과 정신의 변천, 그들의 갈망과 당혹감을 살펴본다.

## 2. 《사람아 아 사람아》와 《廢都》의 인물 비교

《사람아 아 사람아》	《廢 都》
孫悅, 何荊夫, 趙振環 (작자의 시대)	鐘唯賢(중국의 5.60년대 지식인)
奚流	莊之蝶, 孟雲房, 阮之非, 汪希眠(작자의 시대) (중국의 70년대, 80년대 초 지식인)
孫憾	周敏, 唐宛兒, 柳月 等 (중국의 80년대 말, 90년대 지식인과 소시민)

두 편의 소설은 각각 「思想解放運動」(70년대 말과 80년대 초)과 改革과 開放 하에서 이루어진 商品經濟의 발전을 배경으로, 중국의 세 時期에 걸친 지식인과 新市民階層의 운명과 생각을 펼쳐보이고 있다. 묘사의 핵심은 중

\* 이 글은 1995년 6월14일 제56회 공개강연회에서 錢理群 教授가 발표한 요지문이다.

\*\* 北京大 教授

국의 5.60년대 지식인과 7.80년대 지식인(그들은 모두 작자와 同時代人이다)의 心理的 歷程에 있다.

3. 5.60년대의 지식인은 「毛澤東 시대」에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毛澤東을 자신의 정신적 지도자로 삼아 자발적으로 모택동 사상으로써 자신을 형성(개조)해나가, 그들의 몸에는 「毛澤東 사상」이라는 정신적 낙인이 깊숙히 새겨져 있었다.

毛澤東은 청년시절에 친구와 약속한 바가 있었다. “돈을 거론하지 않고, 여자를 거론하지 않고, 신변의 자잘한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오직 國家·社會·民族·人生·宇宙의 大事를 토론한다”, “몸에는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은 천하를 걱정한다.”

毛澤東 시대에는 「돈」(그리고 인간의 모든 물질적 욕망)이나 「여자」(인간의 성욕)는 모두 추악하고 저급한 것으로서, 「人間」을 「動物」로 격하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억압(또는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非動物化」가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 여기고, 인간의 개인적 욕망을 억압(또는 소멸)하고, 개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社會와 國家, 民族과 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인간의 非個人化」와 「인간의 道具化」(黨에 순종하는 도구)가 이루어졌으니, 그것은 「인간의 노예화」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여, 중국인(중국의 지식인)들은 毛澤東을 「神格化」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神格化, 聖賢化(“6억 중국인이 모두 堯舜이 된다”는)를 조장했다. 그러는 한편, 자신들은 다시 「神」(공산당, 지도자)의 도구가 되어 살벌한 계급투쟁 속에서 서로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인간의 動物化」에 이르고 말았다.

말하자면, 論理(그리고 歷史)의 시발점에서의 理想主義(유토피아 사상)적

인 「인간의 비동물화」와 「비개인화」가 「인간의 도구화」의 전개와 변천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논리(그리고 역사)의 종결점에서는 專制主義의 피비린내로 가득한 「인간의 동물화」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정신에 대한 절대적인 추구에서 정신적 자유의 철저한 상실에 이르렀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인간성의 추구에서 인간의 철저한 이질화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5.60년대의 지식인이 달려갔던 고통스럽고 복잡한 정신적 역정이었다.

4. 《사람아 아 사람아》에 나오는 대학생 奚流와 같은 사람들은 거의 10년에 달하는 투쟁을 거치면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은 사회의 「名士」가 되어 《廢都》의 莊之蝶으로 바뀐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같은 「새로운 인간」(개인적인 욕망은 충분히 만족되었지만, 여전히 이상주의적인 도덕적 숭고함을 유지하고 있는)은 되지 못하고, 그들이 사상적으로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商品經濟」의 충격 속에서, 풀려버린 「욕망」은 그들이 기대했던 「도덕적 숭고함」을 불러오지 못하여,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지만 그들이 생각치 못했던 「餘波」가 밀려오게 된다.

먼저 「인간」(지식인)의 世俗化, 또는 市民化이다. 개인의 일상생활(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날로 생활의 주요부분이 되고, 날로 세속적인 인간관계(손님접대와 선물하기, 친구 사귀기,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사람들 간의 분쟁과 충돌)속에 빠지게 되었다. 社會와 人生 그리고 形而上學的인 것(宇宙)에 관심을 잃은 지식인들은 그로부터 「墮落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世俗化는 한 걸음 나아가 인간의 동물화를 초래했다. 한편으로 인간의 애정은 점점 정신적이고 영적인 본질을 잃고, 단순히 肉慾의 生理的 滿足으로 변질되었다.(莊之蝶과 여러 여인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욕망이 지배하는 가운데 더욱 잔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인간의 동물적 흉악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龔靖元의 書畫에 대한 莊之蝶의 약탈 등) -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異質化」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이질화이다. 이렇듯 理想主義가 전

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와 접하면서 소설의 주인공 莊之蝶(그리고 작자 자신)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감에 빠져, 한편으로 虛無主義의 世紀末的 壞滅感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통스럽게 사색과 저항을 해 나간다.

### 5. 두 가지 小結論

(1)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일찌기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말을 공표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인간」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아 아 사람아》로부터 《廢都》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세기 「인간」(중국인)이 자신을 알고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힌 몇 가지 당혹감이다. 어떻게 인간의 동물성(魔性)과 神性, 인간의 육체와 靈, 인간의 精神과 物質, 現實과 理想, 個人性과 社會性을 알고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영원한 모순이자, 영원한 당혹감일 것이다. 《사람아 아 사람아》- 이것은 人類(중국인, 한국인……)의 눈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유희이다.

(2) 20세기에는 資本主義文化와 社會主義文化, 西方文化와 東方文化가 장기간 대립했던 적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선택한 문화를 절대화하고 이상화하는 「文化的 神話」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20세기는 또한 그러한 문화적 신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이기도 하여, 사람들은 결국 조금은 고통스럽게 사회주의문화이든 자본주의문화이든, 동방문화이든 서방문화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인간의 이질화를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모두 「廢都의 文化」라 할 수 있다. 찬란한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理想的인 문화에 대해 절망적인 「廢都의 心理」가 생겨나고, 「世紀末의 心理」를 형성하는 것이다. 환상을 깨뜨리고 문화의 부족함을 똑바로 주시함으로써 파생된, 심도 있는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바로 문화가 轉機를 마련하는 일종의 시발

점이다.

魯迅은 이렇게 말했었다. “思索이 있는 모든 곳, 바로 거기에 文學이 있고 希望이 있다.”